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7월 채용 공고 소폭 증가… '저고용· 낮은 해고' 기조 유지
- Bloomberg: 연준 이사 Michael Barr , “인플레 둔화 없으며 금리 인상 필요”

[금융]
- Reuters: 달러 강세…미 이란 충돌로 물가 불안 탓
- CNBC: HSBC, “현재 금융 상황,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비슷”
- Bloomberg: 글로벌 국채 매도세에 금리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 WSJ: 국채 금리 상승, 월가 넘어 정부·정치권 압박
- Bloomberg: 중동 긴장에 기름값·금리 치솟자 나스닥 급락

[중동 전쟁]
- Bloomberg: 미 압박에도 견디는 이란 경제... 미국 전략 효과 의문

[트럼프 관세]
- USTR: Section 301 과잉 생산’ 조사 절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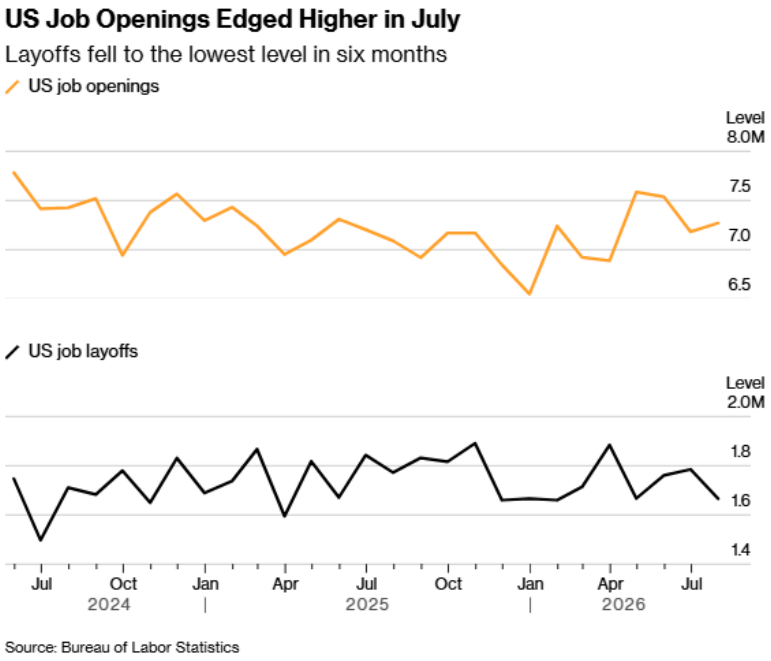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유통업계, 비용 부담에 상품 가짓수 줄인다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Edge Higher in Sign of Stable Labor Demand
미 7월 채용 공고 소폭 증가… '저고용· 낮은 해고' 기조 유지

-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늘고 해고는 줄어들며 노동 수요가 소폭의 안정세를 이어갔다.
- 구인 건수는 전월(718만 건)보다 늘어난 727만 건을 기록했으며, 제조업과 지자체 공공부문,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사리는 가운데, 이번 지표는 노동 시장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고용·저해고(low-hire, low-fire)'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Bloomberg: Fed's Barr Says Higher Rates Needed If Inflation Doesn't Cool
연준 이사 Michael Barr , "인플레 둔화 없으며 금리 인상 필요"

- 연준 Michael Barr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향후 데이터에서 물가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인내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가 불충분하면 즉각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연준 내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추가 인상 없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나, Michael Barr 이사 등은 금리를 유지하려 해도 물가 개선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 둔화 없으면 금리 인상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사

[금융]

Reuters" Dollar gains as Iran tensions fuel bond selloff; yen weakens past 160 again
달러 강세…미 이란 충돌로 물가 불안 탓

-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 재개로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글로벌 채권 시장은 매도세가 이어졌다.
-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 오른 99.637을 기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경고하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 이 영향으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로 상승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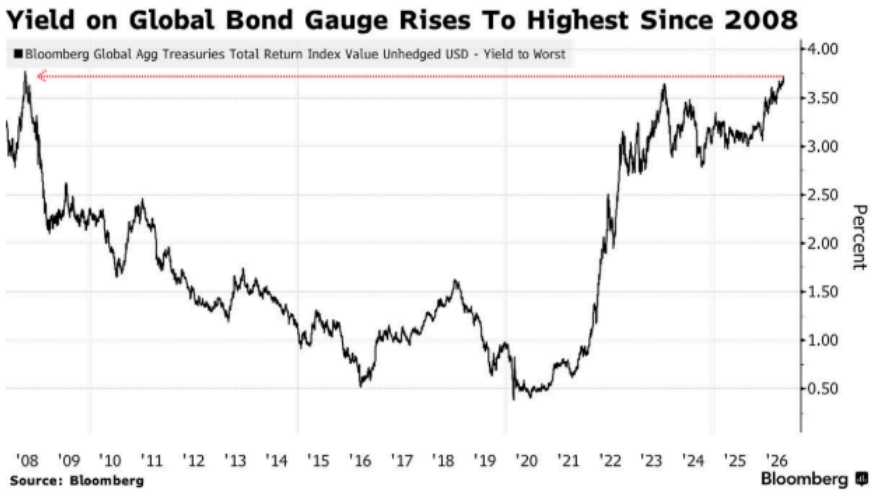
CNBC: A rerun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SBC's chief economist sees significant similarities
HSBC, "현재 금융 상황,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비슷"

- HSBC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인공지능(AI) 등 기술주 시장의 낙관론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와 눈에 띄게 닮았다고 평가했다.
- 이 은행 관계자는 위험의 핵심이 과거와 같은 '금융 위기의 확산'에서, 최근 아시아의 전자제품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의 AI 수요가 꺾일 위험'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 다만 그는 현재의 아시아가 과거보다 위기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기사

Bloomberg: Global Bond Selloff Sends Yields to the Highest Level Since 2008
글로벌 국채 매도세에 금리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기대감이 겹치면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블룸버그 글로벌 국채 금리 지수는 3.72%로 올라 2008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다.
- 트레이더들은 이달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70% 가까이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도 연준의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기사

WSJ: Why Higher Bond Yields Matter
국채 금리 상승, 월가 넘어 정부·정치권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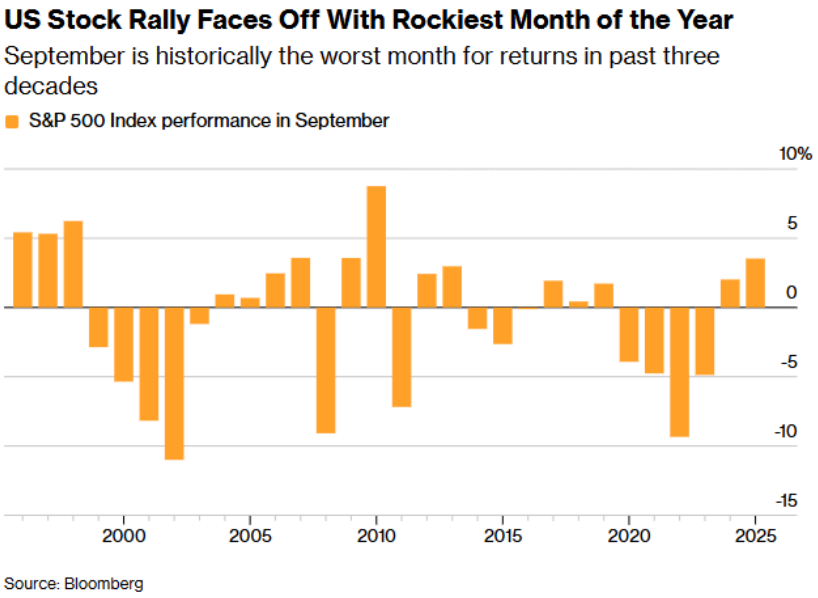
-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그 여파는 월가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급증하는 부채의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될 연방 정부다.

올해 정부 세수 5달러 중 약 1달러가 이자 지급에 쓰이고 있다.
- 연방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과거 50년 평균 GDP의 2.1% 수준이던 순이자 비용은 올해 3.3%, 2036년에는 4.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물가와 생활비 안정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약속은 악재를 맞게 됐다.

기사

Bloomberg: Nasdaq 100 Drops as Oil Spike, Bond Jitters Hit Tech Stocks
중동 긴장에 기름값·금리 치솟자 나스닥 급락

- 중동 지역의 긴장 재발로 유가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우려가 다시 퍼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2주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했다.
- 엔비디아와 AMD, 인텔이 모두 2% 넘게 떨어지는 등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 대부분도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 미·이란 간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8달러를 돌파해 공급 불안을 자극했고, 채권 매도세 가속에 따른 금리 상승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Why Trump's War Hasn't Broken Iran's Economy
미 압박에도 견디는 이란 경제... 미국 전략 효과 의문

-
- 이란 경제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과 고물가, 통화 가치 하락으로 난항을 겪어왔으며, 인프라 타격과 미 해군의 항구 봉쇄로 위기가 한층 악화됐다.
- 그럼에도 이란은 6개월간의 전쟁 속에서 경제 붕괴를 피하며 버텨내고 있다.

- 전쟁이 장기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경고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그러나 오랜 제재 경험으로 이란의 내성이 강한 데다 우방국들 역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 미국의 이 같은 압박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

기사

[트럼프 관세]

USTR's Section 301 investigation concerning structural excess capacity in manufacturing sectors
Section 301 과잉 생산' 조사 절차 및 전망

조사 결과 발표 예상 시기
현재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조사 결과 발표나 조치 시행 일정을 공표하지 않음. 따라서 최종 발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개 정보는 없음.

추가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진행 여부
향후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진행된 Section 301 조사의 전례에 따라 최종 조치 전 보고서 발간 및 '조치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Actions)'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관련 전례: 2026년 강제 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사의 경우, USTR은 최종 조치 발표 전 보고서 및 조치 제안 공고를 게시한 후 별도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진행함.
향후 대응: 동일한 절차 적용 여부는 미정이나, 추가 의견 제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치 제안 공고' 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조사에 따른 잠재적 결과
현재 USTR이 제시한 시정 조치가 없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움. USTR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떠한 무역 조치가 채택될지 예단할 수 없음.

From Jihao Yu, JD
Senior Associate, Trade & Customs, KPMG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Companies Slash Consumer Choice to Save on Import Costs
유통업계, 비용 부담에 상품 가짓수 줄인다

- 수송비 상승과 관세 부담 등으로 비용이 늘자 유통기업들이 상품 종류를 축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품군을 줄이는 추세다.
- 이는 전자 상거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색상·디자인을 늘려오던 기존 전략을 뒤집는 행보다.
- 팬데믹 당시 물량 난항을 겪으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고유가와 신규 관세, 불안정한 소비 수요가 가중되면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 실제 영국의 표준협회(BSI) 조사에 따르면 미 기업 4곳 중 1곳은 향후 6개월 내 판매 상품의 가짓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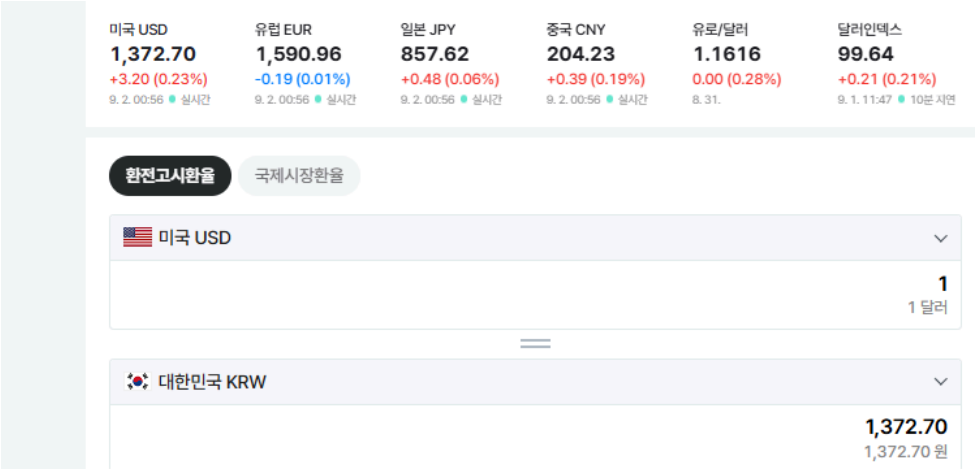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970.70	-215.6	-0.41%
US 500	7,661.70	-24.7	-0.32%
Dow Jones	52,976.82	-209.08	-0.39%
S&P 500	7,660.55	-25.83	-0.34%
Nasdaq	26,248.89	-122.00	-0.46%
S&P 500 VIX	15.22	+0.30	+2.01%
Dollar Index	99.618	+0.233	+0.23%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0/32	5.248	0.004
10-Year Note	4.625	-1/32	4.775	0.019
7-Year Note	4.5	-2/32	4.644	0.025
5-Year Note	4.375	-1/32	4.533	0.021
3-Year Note	4.25	-1/32	4.440	0.030
2-Year Note	4.125	-1/32	4.379	0.025
1-Year Bill	0	0/32	4.138	0.000
6-Month Bill	0	1/32	4.023	0.034
3-Month Bill	0	1/32	3.859	0.032
1-Month Bill	0	0/32	3.752	0.00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